내일신문

지방자치 > 서울

학교 복도·유휴공간 미술관 탈바꿈

2026-10-16 13:00:01 게재

강북구 해설사도 파견

서울 강북구가 학생들이 학교에서 자연스럽게 예술을 접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강북구는 문화재단에서 주관하는 '우리 학교는 미술관' 사업이 큰 호응을 얻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우리 학교…'는 학생들이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학교를 '일상 속 미술관'처럼 만드는 기획 사업이다. '2024년 대한민국 문화예술·관광박람회'에서 우수사례로 선정돼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장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강북구는 지역 내 학교 복도와 유휴공간 등 학생들에게 익숙한 장소에 예술작품을 내걸고 전시와 연계한 다양한 문화예술 과정을 운영한다. 특히 '학교 공간의 문화적 전환'과 '능동적인 예술 경험'에 초점을 맞췄다. 전문 교육과정을 통해 주민들을 해설사로 양성해 학생들과 직접 만나 작품에 대한 설명을 들려주도록 했다. 구는 "학생들이 예술을 어렵고 낯선 대상이 아니라 친숙한 문화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돕는다는 취지"라며 "학생과 학부모 교사들 호응 속에 매년 신청 학교도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강북구는 이를 새로운 문화예술교육 모형으로 진화시킬 방침이다. 학교가 교육 공간을 넘어 지역 문화예술 생태계를 잇는 생활권 문화 거점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사업을 발전시킬 예정이다.

올해는 수유초·유현초·인수초·수유중 등 강북구 관내 4개교에서 작품 전시를 진행한다. 도슨트 프로그램은 9월 28일부터 11월 10일까지 학교별 일정에 따라 운영한다.

구 관계자는 "학생들이 매일 생활하는 학교에서 자연스럽게 문화예술 작품을 만날 수 있다"며 "문화예술이 특정 공간이나 계층에 머무르지 않고 일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진명 기자
jmkim@naeil.com



강북구 주민 해설사가 수유초등학교에서 작품 설명을 하고 있다. 사진 강북구 제공